

# 『삼광 구역 공과』

일시: 2023년 6월 4일 (첫째 주일)

성경본문 : 레위기 13장 1-8절

설교제목 :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레위기의 주제가 거룩입니다. 레위기는 세상의 상태를 세부분으로 나눕니다. 부정과 정결과 거룩입니다. 정결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왜냐하면 거룩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상태입니다. 거룩은 곧 하나님을 누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과 풍성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정결함을 원하십니다. 정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거룩이 상실됨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복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정결함을 원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레위기 11장의 음식법을 통해서 개인의 정결, 레위기12장에서 출산한 여인의 규례를 통해서 가정의 정결 그리고 이제 공동체의 거룩을 다룹니다. 레위기 13장에서부터 14장까지는 피부병에 관한 내용입니다. 레13:2에 나병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차라아트’입니다. 레위기 13과 14장에서 ‘차라아트’는 두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하나는 악성 피부병을 지칭하고, 다른 하나는 나병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이것이 악성 피부병을 의미하는지, 나병을 의미하는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피부병에 대한 주제를 다룹니까? 핵심은 공동체의 정결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제사장은 어떤 사람에게 피부병의 증상들이 그것을 면밀하게 진찰해서 정확한 진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 내용이 3-8절까지입니다. 3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의심스러우면 7일을 격리하고 관찰하고, 또 의심스러우면 7일을 격리해서 또 관찰하라는 것입니다. 관찰을 철저히 해서 정확한 진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선, 공동체를 위협하는 요소를 허락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공동체의 위협은 소수의 사람에서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적지도자와 리더들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교회공동체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좋은게 좋다식이 아닙니다. 교회의 리더들은 공동체를 위협하는 요소를 차단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른 권징의 실행입니다. 바른 교회가 되려면 바른 말씀과 바른 성례의 집행과 바른 권징이 실천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정당한 치리를 통해서 공동체의 거룩성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대교회에 아나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의미가 있습니다. 초대순결을 깨뜨린 사건입니다. 작은 헌금유용입니다. 속여서 감추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베드로가 그 상황의 영적진단을 철저히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초대교회의 정결함을 지킨 사건입니다. 더불어, 개인적으로 자신의 작은 영적문제가 자신의 삶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삶과 신앙에 나타나는 영적인 질병의 증상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질병이 있다면, 그에 합당한 영적 증상이 있습니다. 마음에 계속해서 불평이 생겨나거나, 미움이 생겨나거나, 교회출석이 싫어진다든지, 말씀을 들을 때 계속 졸음이 온다든지, 기도가 되지 않는 것 등입니다. 영적 증상들이 나타날 때 가급적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적 증상들이 느껴지면 빨리 영적 지도자에게 자신의 영적 상태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교회의 영적 지도자보다 성도의 영적 상태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더불어 영적 지도자의 책임은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관찰하고 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허물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검보다 예리합니다.(히4:12)** 좌우의 날선 검은 제사에 쓰는 검입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기자는 검으로 희생제물을 각을 뜯 때의 그림을 이용하여 마치 성경이 인간의 모든 것을 쪼개고 들추어내는 모습을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찢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숨겨질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와 마음과 영혼과 감정 속에 감추어진 모든 것을 빠짐

없이 드러내는 기능을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감추어진 모든 것을 보게 하시고, 회복을 주십니다. 말씀의 자리가 중요합니다. 말씀의 자리에서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병입니다. 털이 희어지고, 환부가 우묵하여졌으면 이것은 나병의 환부입니다.(3절) 그런데 나병의 문제는 고통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나병이 저주의 병입니까? 나병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병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나병의 큰 문제는 공동체로서의 분리입니다.(레13:45-46) 사실은 우리가 모두가 영적 나환자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영적 나환자인 우리를 깨끗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먼저 하신 치유가 나환자를 치유한 사건입니다. 이것을 예표하는 것이 레위기 14장입니다. 레위기 14장 1-9절은 나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입니다. 나환자의 깨끗함을 진단할 때 ‘정한 산새 두 마리’와 ‘백향목’, ‘홍색실과 우슬초’가 필요하였습니다. 제사장은 먼저 새 하나를 흐리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습니다. 질그릇은 육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질그릇에 담아 잡는 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새 하나를 질그릇 안에서 잡는다는 것은 바로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육신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문둥병 환자에게 7번을 뿌려 정하다고 한 후에 한 마리 산새는 들에 놓아 자유케 합니다. 결국 들에 놓인 한 마리 새의 자유는 바로 죽은 새의 피의 댓가입니다. 이 산새 두 마리는 나환자와 예수님이십니다. 이 나환자의 깨끗함은 바로 한 마리 새인 예수님의 피의 댓가로 정함을 선언받는 것입니다. 죽은 새의 피가 7번 뿌려졌다는 것은 7은 완전한 은혜의 숫자입니다. 완전히 정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댓가를 통해 나환자 된 우리의 모든 죄가 정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적 나병이 치유되어 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과 가정과 공동체의 정결함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공동체인 삼광교회를 정결해야 해야 합니다. 정결한 공동체 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온전히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공동체 안에 부정하게 요소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더불어 우리 한 개인의 허물과 죄가 공동체 전체에 확산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부정함이 있다면 빨리 인식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야 회복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부정한 것이 있다면 우리 모두가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정결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 ※.말씀 생각해 보기

- 1) 레위기는 세상을 세부분으로 나눕니다. 부정과 정결과 거룩입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결을 원하시는지 그 이유를 봅시다.
- 2) 레위기 13장의 피부병에 대한 규례의 핵심이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 3) 나병 환자의 특징은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 4) 나병환자의 정결규례가 어떻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하는지 설명해 봅시다.

#### ※.말씀 나누고 적용해 보기

-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 2) 교회공동체의 정결함을 지켜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교회공동체의 정결함을 지켜갈 수 있는지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 3)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내가 달라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